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 선풍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기 이원석



“분대장님, 선풍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군대에서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여름날의 새벽, 소대 불침번을 서고 있던 병사가 보고했다. 나는 재빨리 그 소대로 가서 확인을 했다.

군대에서의 여름밤은 무척이나 덥다. 그래서 밤에 잘 때면, 소대 내무반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를 계속 돌린다. 그리고 바닥에는 주전자로 물을 계속 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청춘들이 삼십 여 명씩 모여 있는 데서 나오는 열기를 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장에 설치된 세 대의 선풍기 중 가운데 있는 선풍기의 전선에 불이 붙어 있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다. 처음 볼 때는 선풍기의 전선이 합선된 듯 했다. 하지만 천장이 나무로 된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주위에 커튼같이 불이 번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서 위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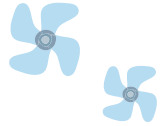
일단 옆에 있던 불침번에게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불을 끈 후, 자고 있는 소대원들을 기상시켰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 잠에 취해 있는 소대원들에게 말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천장에 있는 선풍기에 불

이 붙었다. 막사 밖으로 침착하게 이동하기 바란다.” 소대원들이 반 정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소화기를 가져온 불침번이 불이 붙은 선풍기를 향해 소화기를 발사했다.

그 때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불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전기불도 꺼지면서 엄청난 양의 시꺼먼 연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독한 유독가스도 함께 발생했다. 여기 저기서 심한 기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투복을 입고 일직 근무를 서고 있던 터라 주머니에 먼 손수건이 있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연기는 주로 사람의 허리 윗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몸을 낮추고 가면 이동이 가능했다. 동시에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침상으로 뛰어올라 내무반에 있는 창문을 모두 열었다. 그 사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소대원들은 모두 몸을 낮추고 손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이동하여 문 밖으로 나갔다.

다행하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크게 다친 병사도, 호흡에 문제가 있는 병사도 없었다. 연젠가 책에서 매연이나 분진 같은 물질을 호흡하게 되면 우유를



마시라는 내용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취사병에게 식당 부식 창고에 있는 우유를 가져오게 하여 소대원들에게 마시게 했다.

소대원들이 덮고 있던 모포에 묻은 소화기 분말을 털고 있는 사이,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장교와 함께 다시 내무반에 들어가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통신병을 불러 전기 배선에는 문제없는지도 확인했다. 상황을 모두 마무리한 후 소대원들을 다시 자게 했다. 전기 배선을 확인했던 통신병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사용되어 가열된 선풍기 모터에서 마찰에 의해 작은 불씨가 발생했고, 아마도 그것이 주변 작은 먼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길었던 여름밤이 지나갔다.

아침에 선풍기가 달려 있던 천장 합판을 뜯어보았다. 합판의 뒷면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다. 아마도 불침번이 선풍기 전선에 있는 불을 확인했을 때 이미 내무반 천장 안쪽으로는 불길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불길 중 일부가 선풍기 전선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아찔했다. 만약 불길이 전선을 타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천장으로만 번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그랬다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미 늦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빙산은 수면 위로 올라온 크기가 전체의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배를 운행하다 빙산 주위를 지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불도 마찬가지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불길이 전부다 아니었다. 불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주위를 모두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불은 아주 작은 불씨만으로도 화재로 연결된다. 작은 불씨 하나와 주변의 미세한 먼지만

으로도 큰 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각인된 기억은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였다. 소화기 분말로 불이 꺼짐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뿔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유독가스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다. 내무반이 작아서 바깥으로 쉽게 나갈 수 있어서 그렇지 커다란 건물 안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당황해서 상황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때 몸을 최대한 굽혀 움직이면 당장에 연기를 피하는 것은 가능했으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 숨을 쉬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화재를 경험했던 날의 그 주 토요일. 새 선풍기를 천장에 다시 설치하면서 다른 두 대의 선풍기를 분리하여 모터 주위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청소하였다. 또한 소화기를 다시 구입하여 소대마다 비치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화재에는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이란 화재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에 이를 진압하는데 소화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섯 살이 된 아들이 있다. 이 아이에게 자기 전에,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중요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집 안에 비치해 놓은 소화기 사용법도 가르쳐 줄 생각이다.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한다. 인생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빨리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다. ☺